

회갑연의 새로운 모델 선보여

윤순옥 회장 회갑기념 출판기념회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윤순옥 회장이 회갑을 맞아 수필집 '행복한 오후'를 출간하고 9월2일 송우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꽃다발과 선물증정, 악역소개, 인사말, 축사, 케익절단, 축식, 축하송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윤순옥 회장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가슴속에 쌓여있는 슬픈 사연들을 가끔은 토하고 싶어서 흐르는 물에 띄우기도 했으나 그냥 다 버릴 수 없는 막연한 미련 때문에 움켜쥐고 그림 그리듯 써 내려가 작은 수필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윤순옥 여사님의 회갑연을 겸한 수필집 '행복한 오후'의 발간 축하연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또한 더욱 많이 배워서,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남기시는 그런 보람찬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축하금이나 화환을 받지 않아 또 다른 모범을 보임으로써 포천시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윤순옥 회장은 1947년7월22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윤순옥 회장이 회갑을 맞아 수필집 '행복한 오후'를 출간하고 9월2일 송우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일 총북 제천에서 태어나 1968년 김중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과 만나 결혼한 후 포천군 새마을부녀회장, 포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포천의제21협의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내울포럼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야구계와 병원간 業務協約 체결

포천시야구협회와 연세백병원 협력체계 구축

포천시야구협회(회장 장승호)와 연세백병원(원장 김남호)은 9월5일 포천의 어린이들에게 야구경기와 훈련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 발굴 및 포천의 야구인들의 재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포천시 야구 인의 보건진진 및 향상과 지역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포천시야구협회와 연세백병원은 의료지원, 상호후원, 홍보, 진료혜택 등 네 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 회장은 "포천시 체육발전

과 야구발전을 위하여 연세백병원과 협약식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서로 아름다운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포천에 전하는 두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호 연세백병원 원장은 "오늘 포천시야구협회와 협력기관 협약식을 통해 향후 야구 관련이 포천시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포천시야구인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지역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본 병원은 환자를 위한 진료영역 확충에 배가의 노력을 집중하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시혜기관으로



포천시야구협회와 연세백병원은 9월5일 포천의 어린이들에게 야구경기와 훈련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 발굴 및 포천의 야구인들의 재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포천시 야구 인의 보건진진 및 향상과 지역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상호지원하고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서의 역할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명실공히 포천시의 보건지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전 의료진 및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목적 다름은 새들의 수다에 이슬 머금은 과꽃도 고개 숙인 제비꽃도 얼굴 만 한 점시꽃도 집에서 깨어난 아침. 한 잔의 차를 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신혼시절 점심쯤 뿌리를 삶아 먹으려며 봉숭아 찜어 내 손톱에 얹으시고 곱게 물든 손 예쁘다며 금반지 끼워 주시더니 지금은 누구를 예뻐하시는지... 질부는 무엇이고 있나? 시고모님 음성에 놀라있는 차찬, 네! 고모님. 여름 내내 누웠는지요?

머리단장 해 드리려 가려구요. 고모님과 같이 걸던 이 길. 키도 작으신 분이 손 높이 들어 올려

양산

양산 씌워 주시고 시어머님 야속함에 늘 대변인이셨던 고모님. 조카머리가 그리 많아요 유독 나만을 예뻐하셨던 분. 돌아가신 후 이 길이 이토록 쓸쓸함은 다 못한 효도 때문이라라.

그늘진 땅을 보며 걸다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고모님 떠나시고 시어머님 받쳐주시는 양산... 팔순이 되어 가는 시어머님. 고모님처럼 언제 떠나 싶지 모르는 인생길...팔을 끌어안는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머느리 못 있어 저승길 못 가신다는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임경애 주부영양사

어머니 팔 아프시잖아요. 양산을 받으려니 애야! 양산도 못 씌워주면 죽을 일밖에 더 있나?

어머님 그럼 제가 팔살릴 때가 지 양산 씌워주세요. 머느리의 방자함에도 어머니는 "오나 오나 하신다."

머느리가 아닌 딸이 되어 어머니 원하시는 것은 네, 네,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시리라. 길 옆의 코스모스 한들거리며 고부간의 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자유기고

어느덧 봄인가 했더니 따사로운 따가운 햇볕이 한여름의 더위를 실감케 한다. 잠머비가 오락가락 포도나무가 더위에 지칠까봐 구름도 햇볕을 막아준다.

포도송이는 생기가 넘쳐 보인다. 잠머비가 한결기 쏟아 부어주면 고맙게 한모금 한모금 목을 축이는 재가 역력히 보인다.

배불리 먹고 나면 아무생각 없이 송이송이가 탕탕함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햇볕이 내리쬐이면 수분을 저장해 놓았다가 조금씩 내쉬는 송소리가 너무나 가냘프고 예쁘고 대견하다.

무엇인가 최고가 되고싶은 자태도 보이고 푸른 잎 사이로 더위를 식히는 포도송이가 커가는 모습이 막 태어난 아기의 모습처럼 하루 하루 커 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멋스럽기만 하다.

한여름 농부들의 땀방울이 고집 계절 농부의 땀방울을 포도송이들도 안다는 듯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것 같다.

탐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포도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배가 부르는 것 같다. 이모습 저 모양새를 갖추기까지는 농부의 땀흘린 노력의 맺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봄부터 껍질을 벗기고 가지 하나 하나 잘라주고 철사 사이를 잘 뻗어 내리도록 하나하나 묶어주고 송이들은 가지런히 내려주고 밀려서 찢어지고 터져서 수확을 할 때쯤은 상품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송이송이마다 슈어주고 2~3회 정도 또 슈어해야 한다고 한다.

한 여름 포도의 사랑

알 속속이 끝나고 나면 봉지를 씌워준다. 봉지 씌우는 것은 마지막 수확하기 전까지의 작업이다. 봉지는 특수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봉지의 역할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다.

첫째, 송이를 보호해준다. 둘째, 외부의 위해 상충을 입을 수 있는 (비, 바람, 태풍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셋째, 까치나 참새, 벌레로부터 상처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넷째, 온도조절이 되기 때문에 당수분을 저장해 놓았다가 조금씩 내쉬는 송소리가 너무나 가냘프고 예쁘고 대견하다.

무엇인가 최고가 되고싶은 자태도 보이고 푸른 잎 사이로 더위를 식히는 포도송이가 커가는 모습이 막 태어난 아기의 모습처럼 하루 하루 커 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멋스럽기만 하다.

한여름 농부들의 땀방울이 고집 계절 농부의 땀방울을 포도송이들도 안다는 듯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것 같다.

탐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포도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배가 부르는 것 같다. 이모습 저 모양새를 갖추기까지는 농부의 땀흘린 노력의 맺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봄부터 껍질을 벗기고 가지 하나 하나 잘라주고 철사 사이를 잘 뻗어 내리도록 하나하나 묶어주고 송이들은 가지런히 내려주고 밀려서 찢어지고 터져서 수확을 할 때쯤은 상품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송이송이마다 슈어주고 2~3회 정도 또 슈어해야 한다고 한다.



박옥석 주부영양사

랑경찰서, 동대문경찰서 320여명과 대한주택공사 40여명의 직원이 나서 포도봉지를 씌워주어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기도 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아이 보듬듯이 사랑을 주는 농민들의 사랑이 한껏 빛나는 계절이다. 농가는 조금 한숨을 쉬는 여유가 생기는 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를 유지할 수 있다. 새들이 몰려들면 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생물은 손으로 자주 만지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봉지의 역할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르리의 작목반과 자매결연을 맺은 성동경찰서, 광진경찰서, 중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20골

리틀야구단이 성장하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야 한다

2007년도 절기로는 처서와 백로를 지나 추석을 앞두고 있고 한해의 결실을 수확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가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계절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야구사에서 동대문야구장은 야구의 메카로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야구를 사랑하고 즐겨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일 동대문야구장에서의 경기를 가보면 나이 드신 많은 관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기에 대한 애상과 평가는 날카롭고 승패에 대하여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일명 훈수 야구원들은 두서 없고 거칠게 그리고 재미있는 은어들을 써서 말하지만 감독들의 작전과 심판의 판정까지도 평가를 관중으로 수준 높은 관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야구경기를 같이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의 야구운서나 해설자의 설명 이상으로 재미

의 응원과 함찬 격려를 받으며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항상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고교야구의 진수를 느끼고자 평일 동대문야구장에서의 경기를 가보면 나이 드신 많은 관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기에 대한 애상과 평가는 날카롭고 승패에 대하여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일명 훈수 야구원들은 두서 없고 거칠게 그리고 재미있는 은어들을 써서 말하지만 감독들의 작전과 심판의 판정까지도 평가를 관중으로 수준 높은 관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야구경기를 같이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의 야구운서나 해설자의 설명 이상으로 재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 야구가 있었고 프로야구가 여기까지 크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들의 야구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야구원로들의 모습에서도 잘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투자한 나무는 미래에 큰 나무를 자랑 할 것이고 이 큰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도 되고 중요한 재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포천의 아이들이 크고 훌륭한 재능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성의 세대들의 성실한 노력과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우리 아

이들의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 회장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이 그동안 포천야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20회 연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재를 통해 포천시 야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 회장

웰빙 부사의(不思意) 권위(權威)와 권력(權力) 29

권위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 권력은 남을 다스리는 것

'권위(權威)'를 내세운다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권력(權力)을 쥐고 흔든다는 말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얼핏보아 권위와 권력은 같은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권위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권력은 '남'을 다스리는 것이다. 남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남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권위는 절대(絕對)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대성은 영원(永遠)한 것이다. 언제는 그렇고 언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언제나 정점(頂點)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정점은 하나이고 정상(頂上)은 하나이다. 어떠한 경기이던 최후(最後)의 승자(勝者)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권위는 이런 것이다.

권위는 '남'을 말하는 것이고 권력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권위는 '배우는 것'이고 권력은 '취하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고 취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철학적(哲學的)으로 볼 때 권위는 주는 것이고 권력은 훔치는 것이다. '남'은 지식(知識)과 지혜(智慧)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문성(專門性)에서 나오는 것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 의사대단 사람도 전문가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專門家)를 찾는 것이고 현자(賢者)를 찾는 것이다.

'힘'은 관계(關係)에서 나오는 것이고 협약(協約)에서 나오는 것이다. 관계와 협약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설정(關係設定)을 잘 해야 하고 협약(協約)을 잘 해야 한다. 관계설정을 잘못하면 우열(優劣)에서 밀리게 되고 협약(協約)을 잘못하면 무리로부터 소외(疎外)당하게 된다. 무리로부터 소외(疎外)당한다는 것은 '힘'을 잃는다는 것이고 '권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 분들이 군도(軍道)법인협일무위(君道法人協一無違)라고 한 것이다. 군왕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사람의 뜻을 받들어 하나의 협약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위정자(爲政者)는 권력으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 자발적(自發的)인 노력과 이에 토대를 둔 창의력(創意力)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권력보다 권위가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권위는 전문성(專門性)에서 나온다. '권력'의 힘이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라면 '권위'는 전달된 메시지에 동의(同意)하고 자발적으로 협력(協力)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權威)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다.

'권위'는 절대(絕對)요 진리(眞理)요 최선(最善)이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취하려 하지 말고 배워야 한다. 배울 때면 우선 이는 것(知)이 있어야 하고 가진 것(實)이 있어야 한다.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본(基本)이 안 된 사람이자 지(知)와 실(實)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땀 흘리며 일하고 땀 흘리며 공부해야 한다. 무위(無爲)도식(無爲徒食)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다.

함량부족(含量不足)이란 말이 있다. 함량부족이란 의학용어(醫學用語)에서 나온 말이다. 약효(藥效)를 내기에 그 양(量)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양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으니 능력(能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실력(實力)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양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난국을 헤쳐 나갈 실력도 갖추지 못했으니 '함량부족' '능력부족'이란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함량부족이 되어서도 안 되고 능력부족이 되어서도 안 된다. 위정자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경계(警戒)해야 할 일이다.



이규임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장

“올 겨울이 걱정됩니다”

야미리 영세민 주택 할머니 할아버지

“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이 말은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영세민주택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올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고 있다.

야미리 영세민 주택에는 87세 된 권대순 할머니와 75세의 노년층 할머니, 71세의 최광호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3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지원비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영북면복지사 봉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로는 그저 밥먹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걱정이 앞선다.

기름 한드럼 가격은 20만원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는 41만8천원, 한달에 2드럼을 사용한다 고 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노년층 할머니는 벌써부터 손발이 시리지만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민 주택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사연이 많다. 87세 권대순 할머니는 충청도 출신으로 60세 되던 해에 혼자 되어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던 것은 기억한다. 그러나 이후 기억은 거의 없다. 70세 되던 91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75세의 노년층 할머니는 운전 5리에서 어렵게 살다가 99년 봄에 들어왔다. 그러나 귀가 어렵고 글씨도 모른다. 물론 돈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 최광호 할아버지는 71세로 막노동과 남의 외딴집에서 살다가 2006년 입주했다.

영세민 주택을 거쳐간 사람은

말다. 길거리에 버려진 노인이나 결식하던 노인을 모셔온 장본인은 야미리 이인환 형이장이다. 영세민 주택부지 40여평을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공바시 1천만원을 지원받아 건축했다. 당시에는 버려진 노인이나 결식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국내에 거의 없었고 포천지역에서는 최초의 비인가시설이었다고 한다.

이인환 형이장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박약자나 결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봉대를 보면서 양로원을 운영하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꿈을 위해 그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영세민 주택이다. 영세민 주택을 건축하고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왔다. 영세민 주택에서 살다가 운명한 노인들은 모두 8명이다.

야미리 영세민주택은 91년 경량판넬로 건축된 일종의 기간물이다. 경량판넬 구조로 되어있어 여름에는 무척이나 덥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힘들다. 여

기애다 스테이트 지붕이 샌다고 결식하던 노인을 모셔온 장본인은 야미리 이인환 형이장이다. 영세민 주택부지 40여평을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공바시 1천만원을 지원받아 건축했다. 당시에는 버려진 노인이나 결식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국내에 거의 없었고 포천지역에서는 최초의 비인가시설이었다고 한다.

이인환 형이장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박약자나 결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봉대를 보면서 양로원을 운영하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꿈을 위해 그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영세민 주택이다. 영세민 주택을 건축하고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왔다. 영세민 주택에서 살다가 운명한 노인들은 모두 8명이다.

야미리 영세민주택은 91년 경량판넬로 건축된 일종의 기간물이다. 경량판넬 구조로 되어있어 여름에는 무척이나 덥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힘들다. 여



영북면 야미리 영세민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난방비가 크게 올라 올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사진 좌측은 영세민 주택을 건설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인환 형이장)